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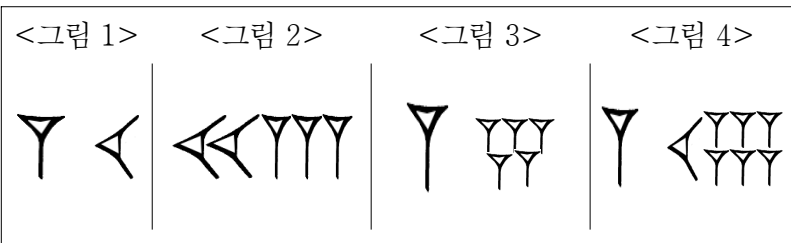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 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속부터 살펴야 해.
- ② 서로 마음이 맞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
- ③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
- ④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
- ⑤ 마음의 기쁨은 주어진 일을 다 마쳤을 때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2. (물음) 교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① 56
- ② 76
- ③ 96
- ④ 116
- ⑤ 136

3. (물음) 대화에서 학생의 마지막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 그렇다면 ()

- ① 탑은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를 반영하여 세워졌겠군요.
- ② 탑의 구조를 통해서 탑의 건축 양식을 판단할 수 있겠군요.
- ③ 탑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군요.
- ④ 탑은 층수와 관계없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군요.
- ⑤ 탑의 형태를 통해서 당대의 건축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군요.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뉴스를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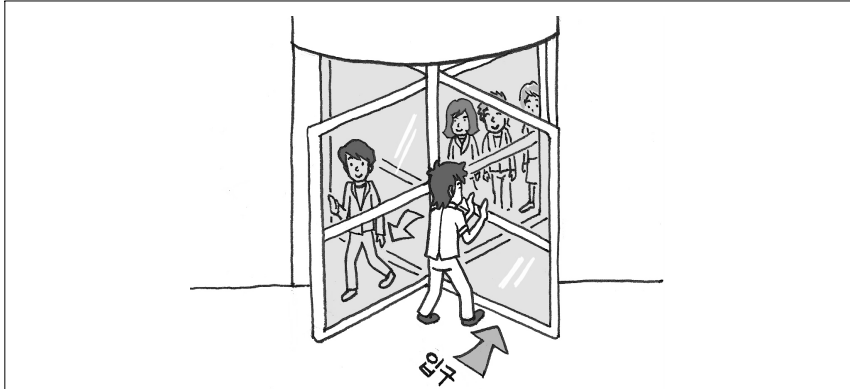
- ①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
- ② 트랜스 지방의 발생 과정
- ③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식품
- ④ 트랜스 지방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
- ⑤ 트랜스 지방을 낮추기 위한 기업 활동

5. (물음) 뉴스에 나타난 기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논평을 달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 ③ 특정 사실을 과장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선진국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기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그림을 보고 연상한 내용 중, 타당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ㄱ. 관문 :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 ㄴ. 용기 : 주어진 길만을 따라가지 말고 상황에 맞게 다른 방법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ㄷ. 시도 :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ㄹ. 질서 : 질서와 차례를 지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혼란과 불편도 막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7. '친환경 농산물 가격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결 방안'에서 활용할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인식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이 부담스러움
↓	
원인 분석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및 유통비가 많이 듦
↓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 기술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 유통 구조의 간소화로 유통비 절감

〈 글 감 〉

- ㄱ.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 ㄴ. 친환경 고효율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 ㄷ. 인터넷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실시간 거래 확대
- ㄹ. 친환경 농산물의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 장터 확대
- ㅁ. 선진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비 절감 사례 활용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8. '여성의 사회 활동과 육아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 여성의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육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I. 문제 제기

여성의 사회 활동으로 인한 자녀 교육 소홀 ㉠

II. 원인 분석

가. 가정적 측면

- 1. 남편의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부족
- 2. 육아를 도와 줄 가족 구성원 부족
- 3. 육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육 시설 미비 ㉡

나. 사회적 측면

- 1. 여성에 대한 기업의 지원 미비 ㉢
-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미비

III. 해결 방안

가. 가정적 측면

- 1. 남편의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 2. 이웃 간 소모임 형태의 공동 육아
- 3. 교육을 통한 여성의 건전한 직업 의식 확립 ㉣

나. 사회적 측면 ㉤

- 1. 육아 휴직, 재택근무 등 기업의 복지 시스템 구축
- 2.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및 기업 내 보육 시설 마련






- ① ㉠ : 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육아 문제로 사회 활동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증가'로 수정한다.
- ② ㉡ : 'II-가'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II-나'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③ ㉢ :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출산 여성에 대한 기업의 지원 미비'로 바꾼다.
- ④ ㉣ :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 : 'III-나'에 '여성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의 재정비' 내용을 추가한다.

9.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조건]

- 소재를 활용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문구로 쓸 것
- 의인법과 대구법을 사용할 것

	소재	실천문구
①		오늘 아침 출근길은 자전거를 타 보세요. 앞바퀴엔 신선한 공기, 뒷바퀴엔 산뜻한 하루.
②		저녁 식탁은 전등 대신 저를 켜 보세요. 은은한 불빛 속에 따스한 가족의 정.
③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 보아요. 마음도 상쾌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④		차를 드실 때는 종이컵 대신 제게 따라 주세요. 살아나는 나무, 즐거워하는 숲.
⑤		건조기를 쉬게 하고 제가 등장하는 날. 비누 향기 날리며 춤을 추지요.

10.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성공적인 리더의 권위에 대한 인식"

리더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리더를 지위로 인식하는 관점과 역할로 인식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리더를 지위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리더로 임명되면 ㉡ 구성원들이 리더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 반면 리더를 역할로 인정하는 사람은 구성원을 동반자로 생각한다. 전자는 위압적인 태도로 구성원들과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함으로써 조직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것이 후자를 성공적인 리더로 인정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성공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팀 전체의 탁월한 능력을 이끌어 낼 줄 안다. ㉢ 리더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다. 그는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양한 관점, 기술, 지식을 총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팀 공동 목표와 ㉤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도 아울러 지녀야 한다.

- ① ㉠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성공적인 리더의 조건'으로 수정한다.
- ② ㉡은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를 살펴 서술어를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로 바꾼다.
- ③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바꾼다.
- ⑤ ㉤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상충되지'로 수정한다.

11.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한 예가 아닌 것은?

< 보기 >

제 47 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
예)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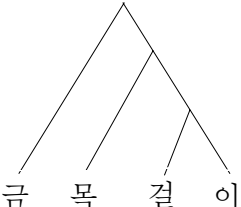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예) 잘난 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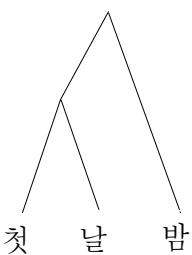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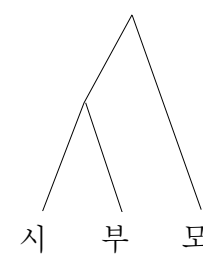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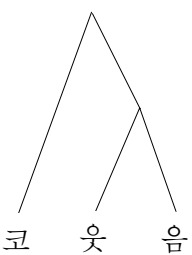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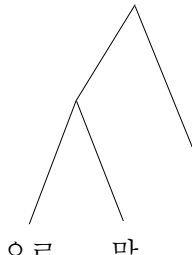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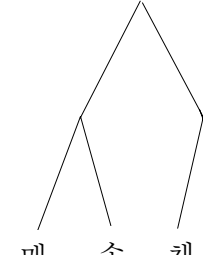
- ① 내 힘으로 막아낸다.
- ② 이번엔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③ 오늘은 힘든 일도 잘 될 법하다.
- ④ 늦은 저녁에 그녀가 올 듯도하다.
- ⑤ 그는 누나가 추천한 책을 읽어는 보았다.

12.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단어의 분석이 잘못된 것은?

< 보기 >

단어의 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구성 요소 간의 묶임 순서를 올바르게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목걸이'를 '금목'과 '걸이'로 분석한다면 '사람의 목이 금으로 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는 '금'과 '목걸이'로 분석해야 한다. '목걸이'는 다시 '목+걸이' 형태로 분석되고, '걸이' 역시 '거는 것'의 의미이므로 '걸+이'로 분석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태양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 헐어진 성(城)터를 헤메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땀물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땀물」

(나)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마리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헤엄치는
초록의 강 물결
어우러져 날으는 애기 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적은 여울을 마시듯이
당신이 다시 그를 데려가고
그 휘 — ㄴ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기인 밤을 두셨습니다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번 내 위에 밝는 날
이제
산스골에 피어나는 **도라지 꽃** 같은
내 마음의 빛같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

(다)

이 **㉠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겠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 이수복, 「봄비」

* 시새워 : 시샘하듯 다투어

* 향연 : 향을 피운 연기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서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 하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시인 소개]

신석정(1907-1974)은 주로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성향의 서정적 시 세계를 펼쳤고, 또한 역사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작품 배경]

이 작품은 「해방 기념 시집」(1946)에 수록된 시(詩)이다. 시인이 일제 강점기의 시련이 끝나고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좌·우익의 이념 갈등 속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를 창작하였다.

- ① 1연의 '태양'은 '태양을 등진 곳'이라는 어두운 역사적 상황에서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광복을 상징한다.
- ② 2연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에서는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처절한 심정이 드러난다.
- ③ 3연에서는 '뱃'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고통을 받았거나 변절했던 사람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드디어'를 통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화자의 감회가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꽃뎀불'을 통해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며,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시장의 번성한 모습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군.”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 분명하다. 모름지기 상인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중 하나에 속하지만, 이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서로 통하게 하기 때문에, 열 가운데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그 나머지 물건은 모두 무용지물이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용지물을 사용하여 유용한 물건을 유통시키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유용하다는 물건은 대부분이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돌아다니다 쉽게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옛날의 성인과 제왕께서는 이를 위하여 주옥(珠玉)과 화폐 등의 물건을 만들어 가벼운 물건으로 무거운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였고, 무용한 물건으로 유용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다시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난한 지역까지도 물건을 유통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혹시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민생을 위하여 폭넓게 조치하신 그분들의 정성이 이런 정도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 리이므로 백성들이 적지 않고, 토산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山地)나 물에서 생산되는 이로운 물건이 전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일용 생활에 필요한 일이 팽개쳐진 채 논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거마(車馬)·주택(住宅)·단청(丹青)·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그렇지만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인해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일러 검소함이라고 하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일컫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珊瑚)의 물건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 우리의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이는 그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한 데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하여진다.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림과 같다. 따라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여인의 기술이 퇴보하였다. 이치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기교를 부려 물건을 만드는 것을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에는 공장(工匠)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그러므로 그러한 기술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15. <보기>와 (나)를 읽고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다시 밝은 날에」는 '춘향'을 모티브로 한 '춘향의 딸'이라는 연작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화자는 '춘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령님'이 '그'의 모습으로 화신(化身)하여 온 것을 볼 때, '그'는 '이도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자인 '신령님'은 곧 '이도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춘향은 '그'가 '신령님'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의 만남과 사랑, 이별을 겪은 뒤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춘향은 스스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이도령'을 만나기 전의 '춘향'의 '마음'을 밝고 평화로운 '애기 구름'으로 보여주고 있군.
- ② '이도령'에 대한 강렬하고 걱정적인 '춘향'의 사랑을 '미친 회오리바람'으로 말하고 있군.
- ③ '이도령'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을 내면화할 만큼 성숙했음을 '저녁노을'로 나타내고 있군.
- ④ '춘향'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이군.
- 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와의 영원한 만남을 회구하는 '춘향'의 마음을 다시 '밝은 날'에 대한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군.

16. (다)의 ㉠ ~ ㉣ 중, (나)의 **도라지 꽃**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다양한 사례를 들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인과의 방법으로 대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문자답(自問自答)의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18. 위 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조사하였을 만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통 구조 및 소비 물품 현황
- ② 조세 제도 및 세금 부과 내역
- ③ 화폐, 배, 수레 등의 경제 기반 현황
- ④ 상업과 시장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 ⑤ 재화 보유 현황 및 재화 이용 기술 보급 현황

19. 위 글의 관점에서 볼 때, <보기>의 내용을 읽고 글쓴이가 했을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 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방법은 단기간에 이익을 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군.
- ② 이 사람은 부의 축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군. 그렇게 한 가지 재화로는 어렵도 없지. 작은 포부로는 이루는 것도 작을 거야.
- ③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은 재화의 규모가 작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나라의 유통망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이 사람은 재화를 고르는 안목이 부족하군. 생활에 밀접한 재화보다는 진주와 산호 같은 재화의 이윤이 더 크다는 걸 몰랐던 거야.
- ⑤ 이 사람은 재화의 가격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려놓았으니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양반인 이생과 김생은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김생이 장원 급제해 평안 감사가 되자 이생을 청해 별당에 거쳐하게 했다. 어느 날 성대한 잔치를 열어 이생을 위로하고자 했으나 외골수인 이생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며 잔치를 망치고 자리를 뜬다. 이에 감사는 기생 오유란을 시켜 이생을 유혹하도록 명하고, 백성들도 이생을 속이는 데 동참하도록 지시한다. 이에 과부로 가장한 오유란은 이생을 유혹하여 정을 통하는 데 성공한다. 오유란과 감사의 계략에 걸려든 이생은 오유란과 자신이 죽어 이승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고까지 믿게 된다.

“여염집 사이에 동서로 다니며 함부로 빼앗아 먹는 것은 매우 잔인할 뿐더러 고상하지 못합니다. ㉠ 이번에는 사또한테 가서 빼앗아 먹고 싶으나, 낭군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와 나의 사이는 일찍부터 형제와 같은 정이가 있었는데 내 비록 십순구식(十旬九食)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차마 빼앗아 먹겠소? 다시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

“의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가령 낭군님이 살아 있었을 때에 사또한테 얻어먹은 것이 정의가 깊어져서 그러하십니까? 인정이 많아서 그러하십니까? 저는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조금도 멀리함이 없으니, 이제 한번쯤 음식을 빼앗아 먹는데 대하여 무슨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낭자의 말이 옳소!”

이에 오유란은 훌치마만 걸치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날이 더워 염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낭군님은 이미 시험해 보았거니와 다른 사람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알몸으로 문을 나서니 행동이 어수룩하고 모습이 초라했다. 대낮에 보는 사람 쳐놓고 누구나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 엄중한 명령 하에 감히 지껄이지 못했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사문을 걸어서 지나갔다. 즉시 선화당 대청 위로 올라가서, 오유란이 물러서며 이생에게 속삭이기를,

“사또가 저기 있으니, 낭군님은 이전 이방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들어가서 사또를 치고 그 거동을 보십시오.”

“나는 익숙하지 못하는데 어찌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일은 그리 어렵지 아니합니다. ㉢ 저는 상하의 분수가 있어서 감히 할 수 없거니와, 낭군님은 무슨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생은 마지못하여 허리를 꾸부리고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머뭇거리고 서성대면서 보는 것과 같고, 아는 것과 같아서 바로 곧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살피고 있는데, 감사가 가만히 담배대로 이생의 배를 쿡 찌르면서 말했다.

“형장은 이 무슨 풀인가?”

[A] 이생은 깜짝 놀라며 털썩 주저앉고는 비로소 자기가 살아 있음을 깨달으니, 취몽이 삼월달 봄날에 깬 것과 같고, 훈풍이 한가닥 불어온 것과 같이 정신이 들었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자기를 속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감사는 즉시 관비에게 명하여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입히게 했다. 이생은 더욱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생은 이튿날 새벽에 노비를 마련해 가지고 감사도 만나보지 않

고, 오유란도 껄껄하여 한 마디 인사도 없이 그곳을 떠나 밤낮으로 달려 겨우 서울에 도착했다.

부모들은 그의 얼굴이 해쓱함을 보고 근심 걱정을 하였고, 종들은 그 차림이 초라함을 살피고 의심했다. ㉔ 이생은 대답하기를 오는데 애를 먹고 병이 들어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생은 정사로 물러가 거처하며, 설분(雪憤)에만 뜻을 두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해 가을에 마침 임금님이 문묘에 참배하심을 만나 글을 품고 가서 올렸던 바, 다행히 임금의 눈에 들게 되었다.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한림학사로 뽑혔으니, 부모님들이 다 같이 즐거워할 영광이요, 친척들도 다 같이 기뻐할 경하였다. 원근이 모두 기뻐 날뛰며 칭찬하느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때 서쪽 지방에 심한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였다. 임금은 근심하고 신하들을 보고 암행어사가 될 인재를 뽑아 오리라 했더니, 곧 이한림이 뽑혔다.

이한림은 새 명령을 분부 받고, ㉕ 설분할 기회가 닥쳐왔음을 못내 기뻐하며 매우 다행으로 여겼다. 행장을 다스려 가지고 곧 떠나 전전하면서 서주로 가니 행로가 흥겨웠고, 의기가 양양하였다.

- 작자 미상, 「오유란전」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사건 전개 상 우연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등장인물이 나뉘어 있다.
- ④ 해학적 상황을 통해 등장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21. 위 글의 ‘이생’과 <보기>의 ‘춘풍’에 대한 공통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술 잘 먹는 이태백은 앵무배로 백년 삼만 육천 일, 하루 삼백 배로 매일 장취(長醉)하였어도 한림학사 다 지내고, 자골전 일손이 술을 많이 먹어도 나중에 잘 되어서 일품 벼슬하였으니, 일로 볼지라도 술과 노름 좋아하기 남아의 상사로다.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벼슬하고 이름을 후세(後世)에 전하리라.”

이처럼 허랑하고 조석을 이룰 수 없이 가산을 탕진(蕩盡)한지라. 춘풍이 할 일 없어 그제야 아내에게 사과하고 지성으로 비는 말이,

“자네 부디 노여워 마오. 자네 부디 설위 마소. 이왕지사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찌하면 종단 말고. 오늘부터 집안일을 자네에게 맡길 것이니 의식(衣食)이나 줄이지 말게 하소.”

- ① 자신의 위엄과 권위가 무너져 체면이 구겨진 인물들이군.
- ② 자신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인물들이군.
- ③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지만 남성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인물들이군.
- ④ 여성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물들이군.
- ⑤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인물들이군.

22. [A] 를 본 당시의 양반들이 보였을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더니.
- ②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쓴다더니.
- ③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 ④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더니.
- ⑤ 내를 건너간 놈은 지팡이를 팽개친다더니.

23. 문맥상,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오유란이 사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 사또가 이생을 골탕 먹이려는 계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 ③ ㉓ : 오유란이 사또와 이생의 친분을 앞세워 이생을 회유하고 있다.
- ④ ㉔ : 이생이 자기가 모욕당한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숨기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㉕ : 이생이 오유란과 사또에 설욕할 기회가 왔음을 기뻐하고 있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하학은 사물의 형(形)과 크기를 취급하는 과학, 혹은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기하학적 형이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며 응축된 단순화된 형태들이다. 패턴이라는 용어는 동사로 쓰였을 때, '무늬를 놓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하학적 패턴은 '기하학적 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하학적 패턴은 원시 사회의 주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상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 패턴은 인류와 시작을 같이 하는 문양이지만 현대적인 감각이다. 조형 표현에 있어서 기하학적 패턴은 20세기 이후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재구성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기하학적 패턴의 모티브가 되는 기본 유형은 곡선적인 형과 직선적인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하학적 형 중에 원형(圓形)은 무한한 움직임의 순간과 회전의 항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인 동시에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로 편안해 보이며 밝은 느낌을 준다. 사각형(四角形)은 수직, 수평에 의해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며 견고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좌우로 긴 직사각형은 밖에서 압력을 받는

[A] 이미지인 반면에 상하로 긴 직사각형은 상승과 경쾌한 이미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특히 사각형은 침착한 이미지와 중량감이 느껴져 가구의 밑단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삼각형(三角形)은 꼭짓점이 위에 하나 있는 삼각형의 경우 정점의 방향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로서 안정감과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반면,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꼭짓점이 위에 두개가 있는 역삼각형은 불안정한 느낌과 강한 역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삼각형은 정점의 각을 달리 하여 방향성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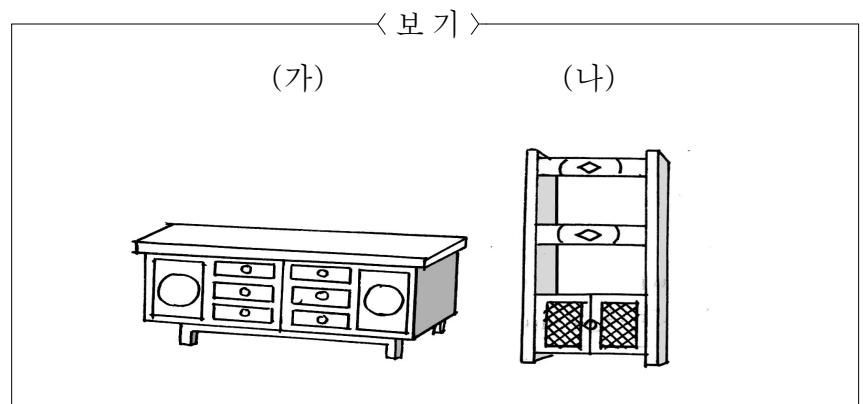
기하학적 패턴의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는 외형뿐만 아니라 문양 장식을 통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있다. 문양 장식의 단순성은 절제(節制)되고 이성적이며 현대적인 세련미와 잘 어울린다. 이렇듯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한 가구 문양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도형들을 이용하여 단순함의 미(美)로 현대인에게 만족감을 준다. 기하학적 패턴은 규칙적이고 단순 명료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유도하며 ㉠ 운동감과 속도감이 주는 역동성으로 3차원적인 ㉡ 공간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 주목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구에서도 이러한 기하학적 패턴을 이용한 문양 장식은 강한 주목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는 반복적인 재현 가능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 우연성의 요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정확한 재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 반복성은 가구를 만드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의 문양에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모든 예술은 시대적인 요구와 상황에 의해 항상 변화되어 왔다. 오늘날의 가구는 기존의 미적 가치를 포용하면서도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실험적인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가구에 기하학적 패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대 가구도 독자적인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서 그 가치와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삼각형 유형은 안정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 ② 기하학적 패턴은 합리적인 사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 ③ 문양 장식의 단순함은 현대인의 미의식과 거리가 있다.
- ④ 기하학적 패턴은 현대의 예술가들에 의해 처음 활용되었다.
- ⑤ 기하학적 패턴은 시간이 흐를수록 활용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25. [A] 를 참고하여 <보기>의 (가),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상승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 ② (나)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며 정적인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다.
- ③ (나)는 상하로 긴 사각형에서 경쾌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 ④ (가)는 (나)에 비해서 강한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후함과 역동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26. ㉠~㉤ 중, <보기>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

옵티컬 아트(Optical art)는 시각적인 미술의 약칭으로, 정적이었던 색과 형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눈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술이다. 이는 기하학적 패턴의 점층으로 대담한 그래픽 효과를 제시하여,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떨리는 안구의 작용에 의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보여준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1년 국내 한 자동차 회사는 출근 체크와 식당 이용 등을 위해 버스 카드와 비슷한 RF(Radil Frequency)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는 판독기에서 50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종업원이 근무 외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얼마 동안 비우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결과적으로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벤담은 그의 책 「파놉티콘」 서문에서 “파놉티콘을 통해서 도덕이 개혁되고, 건강이 보존되며, 산업이 활성화되고, 훈령이 확산되며, 경제가 반석에 오른다.” 고 하여 그 응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파놉티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벤담이 제안한 죄수 교화 시설을 말한다. 파놉티콘은 부채꼴로 지어져 바깥쪽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탑이 있다. 죄수의 방은 늘 밝게 유지되어 죄수의 사소한 움직임도 이 방의 창을 통해 중앙의 감시자에게 항상 ㉠ 포착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중앙 감시탑의 내부는 항상 어두워 죄수가 감시자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감시자가 자신을 ㉡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시선의 비대칭성’이 파놉티콘의 핵심 구조였다. 다시 말하면, 죄수들이 단지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감시자의 시선 때문에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죄수들은 점차 이 규율 권력을 ‘내면화’하여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파놉티콘이 현대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출간하면서부터이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스펙터클 사회’와 ‘규율 사회’로 구별했다. ‘스펙터클 사회’에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만인의 ㉢ 시선’이 있고, ‘규율 사회’에는 ‘만인을 감시하는 한 사람의 권력자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 보던 시선이 ‘군주 권력’을 상징한 것이라면,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은 ‘규율 권력’을 상징하게 된다. 즉 근대 사회에 들어 ‘군주 권력’ 중심의 사회에서 ‘규율 권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고,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벤담의 파놉티콘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파놉티콘은 감옥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의 적용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 파놉티콘의 감시의 원리는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어 규율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파놉티시즘이 되었다. 따라서 환자 치료, 교육, 노동자 감독, 게으름뱅이들의 직업 훈련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푸코는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군대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다시 감옥과 닮았다.’고 지적하며, 바로 이러한 현상을 ‘세상의 파놉티콘화’라 정의했다.

현대의 파놉티콘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를 통한 직접 감시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특징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중앙 통제실에서 동시에 ㉣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파놉티콘의 또 다른 특징은 감시가 오히려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 수집하는 경우에 잘 드러난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경품이나 포인트 점수, 멤버십 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정보를 얻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Mark Poster)는 이렇게 기업이 수집한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슈퍼 파놉티콘’이라고 지칭하였고, ‘슈퍼 파놉티콘’의 중요한 특성은 바로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놉티콘의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는 공간이 있다.
- ② 파놉티콘의 등장으로 근대 사회의 시작이 앞당겨졌다.
- ③ 규율 사회에는 시민을 감시하는 권력자의 시선이 존재한다.
- ④ 현대에서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⑤ 파놉티콘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8. 위 글을 바탕으로 ‘슈퍼 파놉티콘’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슈퍼 파놉티콘에서의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서도 ‘시선의 비대칭성’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슈퍼 파놉티콘에서 소비자는 기업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③ 파놉티콘에서 ‘감시자의 시선’은 슈퍼 파놉티콘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기업이 주는 혜택으로 변형되고 있다.
- ④ 기업은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여 ‘군주 권력’을 실현하고 있다.
- ⑤ 슈퍼 파놉티콘에서의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알지 못한 채 기업이 주는 혜택과 맞바꾸고 있다.

29. ㉠ ~ ㉤ 중, 문맥상 의미가 다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욕심이란 말에는 황씨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욕심이었으니까. 돈 가치로 친 욕심에서가 아니라 농사꾼이 들판을 일꾼을 본 데서 난 당연한 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황씨나 할 수 있는 변명이고 선출은 마침 잘한 말이라 싶었다. 닭아세우고 낮박살을 내기 좋은 구실이 된 것이다.

“뭘시오? 그러구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구먼요. 소를 팔재두 싫다 달라고 해도 싫다 하여 왜 저러나 했더니만……. 탐을 낼 게 따루 있지유, 좋시다. 해 볼 대루 해 보슈. 나두 결심이 있으니까.”

황씨는 더욱 귀살머리스럽고 불쾌했다. 선출은 정말 당장 장으로 몰아가기라도 할 듯이 코뚜레로 손을 가져갔다.

“왜 이러? 새끼 뺨 소털…….”

황씨가 막아서자 선출은 ㉠ 부앗김에 오금을 박아 주마고,

“아니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아저씨 것이라두 된단 말유?”

“?”

황씨는 듣던 중 느닷없는 소리였지만 솔깃했다. 따라서, 낳게 될 송아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음을 깨달았고 처음으로 관심을 사게 된 동기가 되어 준 말이기도 했다. 이어 송아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다 보면 어미 소를 잡아 두는 데에 혹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순간적인 발전을 보였다.

“허다 못 허니까 그것두 말이라고 허나?”

황씨는 갑자기 배짱과 딱김이 솟아 자신이 서는 것 같았다. 아무리 선의로 대하려고 해도 안 먹혀들면 도리 없는 것이었다. 선출이도 단박 삿대질을 해 댔다.

“그게 뭐제 그류? 에미 있구 새끼 있지 더군다나 뺨속에 들어 한몸 인디 뭐제 이 집 물건이난 말유?”

“㉡ 계약서에두 아직 잉끼가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나는 이 암소, 응 암소만 질러서 팔어 갖기루 되어 있어. 말을 허야 알아듣것다면, 거기에 새끼까장 자네 게라구 써 있지두 앓구, 또 소헌티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기루 되어 있던 말여. 그런 연고여. 왜?”

황씨는 언성을 높여 떠들었다.

“허지만 소헌티 사고가 난 것은 아니잖유?”

“소가 암창내 난 것이 사고가 아니면 무에라냐?”

“그럼 그건 그렇다구 허구, 그래서 책임을 져단 말인감유?”

“암만, 암내난 짐승헌티 해웃값 들여 가며 집붙인 것이 책임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나 자기 소견과 주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날까지 밥 먹은 것을 속편해 했고 손바닥만한 하늘을 믿고 삼대 목은 초가를 지키며 살아왔더냐고 선출은 묻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는 하루바빠 고향을 등지고 타관에, 가급적이면 서울 바닥으로 전출을 해야 성공하게 되며 그러자면 이 금전 관계가 얼른 해결돼야 한다는 사정도 덧붙이고 싶었다.

<중략>

“얼라, 엄니 소 워디 갔다?”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범석거리기 시작했다.

“소가?” / “소여…….” / “큰일 났네.” / “소 직이졌는다.”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 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

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지게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지 못해 고삐 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와 빨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서 술 한 독을 다 먹어 치운 것으로 추측한 거였다. 고랏덱 가늠으로는 쌀 한 말을 담아 거르면 보통 막걸리 옛 말이 났다. 그러니까 소는 줄잡아 막걸리 너 말가웃치를 단숨에 먹어 치운 셈이었다.

선출이와 황씨는 ㉢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씨네 밭 마당가 우물 도랑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 나뉘고로 비칠거리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져 버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 선출이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 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기에도 지쳐 두 다리를 뺨고 주저앉았고, 선출이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되어 있었다.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니 몽유중이기를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들 벗어나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짚토매 점 가져와, 소 얼어 죽었다.”

누군가가 짚누리를 헐고 짚 몇 단을 가져왔다. 이윽고 마당 한복판에는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타올랐다. 또 누군가는 먹은 것을 토악질시켜 게워 내도록 해야 산다고 양순이에게 멧돌에 녹두를 타 오도록 재촉했다. 부랴부랴 멧돌에 녹쌀 낸 녹두 가루를 멧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야나 들어부었지만 워낙 의식 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엔 수의 할아버라도 소용없겠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소는 잠이 들어 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게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날씨는 선달 날씨였고 ㉤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곤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현 멍에 벗어 던지듯 하고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된 것이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쾌짙한 놈아, 이 쾌짙한 놈…….”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털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랏덱은 어서 날이 새어 소 배를 가르고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폭신 고아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리라는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짚단을 더 얹었다.

밤이 깊어 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 두면 그름 대목까지 곰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늘 아래 이 동네 서고 소가 술 취해 죽기는 듣고 보기 처음이라고 탄식이 거듭되었다.

계속 모닥불은 터지게 얼어붙은 하늘을 태웠고, 타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슬픔처럼 곡성이 멀리 퍼지며 산과 들도 울먹이기 시작하게 했다. 겨우 제정신이 온 선출이가 사 년간 모아 온 이품으로 몸부림인 곁에서 신실이마저 신세타령 삼아 목 놓아 울어 대고부터는.

- 이문구, 「암소」

3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성격의 변화를 통하여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서술의 시점을 변화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세밀한 외양 묘사를 바탕으로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1.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 중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graph TD
    A((암소)) --- B((황씨))
    A --- C((선출))
    A --- D((고랏댁))
    A --- E((마을 사람))
    B --- C
    D --- E
    
```

[암소를 중심으로 한 인물 간의 관계]

ㄱ. 선출은 암소를 마을 사람들에게 팔고자 하며, 암소를 사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ㄴ. 선출에게는 암소의 실제 소유권이 있으며, 태어날 송아지의 소유권 문제로 황씨와 대립 관계를 맺고 있다.

ㄷ. 황씨는 암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고랏댁과 함께 태어날 송아지를 팔기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ㄹ. 황씨는 선출과 금전적으로 채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선출이 맡긴 암소를 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2.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평소 마음먹었던 일을 실행하겠다고
- ② ㉡: 계약서를 작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 ③ ㉢: 이성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 ④ ㉣: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 ⑤ ㉤: 찬바람이 늦은 밤까지 계속 불고 있었는데

33.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전통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군.
- ②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 간의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도 나를 속이는 믿지 못할 세대를 비판하고 있군.
- ④ 물질로 인해 생긴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결국 그러한 욕심이 덧없게 되어버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군.
- ⑤ 농촌 사람들의 각박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고 있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음성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구어(口語)라 한다. 이러한 구어는 문어(文語)와 달리 어린 시기에 배운 단순한 형태적, 통사적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화 참여자나 상황에 따라 구어는 독백과 대화로 나뉘는데, 독백의 경우에는 연설과 같은 계획적인 독백과 강의나 인터뷰와 같은 비계획적인 독백이 있다. 이 중 계획된 독백은 문자로 원고가 준비되고 다시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구어보다는 문어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어는 음성을 매개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음운론적 특징은 구어의 특징이 된다. 즉, 문어가 단일한 철자법에 의해 전달되는 데 반해, 구어는 음성적 변이(變異)형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음운의 축약이나 탈락, ㉠ 표준적이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발음, 말끝의 억양을 통해 서술이나 의문, 명령이나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구어의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구어는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여 발음할 수 있고, 발화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 가령, “어제 도서관에 갔니?”라는 말을 할 때, ‘어제’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도서관’에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진다.

또한 우리말의 구어는 문법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사용되지 않으며 단순하고 짧은 형을 선택하여 발화(發話)된다. 짧게 ㉡ 발화되다 보니 조사나 문장 성분, 구나 절 등의 생략도 많고 발화의 단위가 문장 이하의 짧은 형, 즉 어절이나 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어순의 경우 강조나 말을 할 때 잠시 멈추는 휴지(休止) 등의 삽입이 문어에 비해 더욱 자유롭다. 또 구어체 어미를 사용하거나 접속 조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들 수 있다. 아울러 ‘무지, 진짜’ 등과 같은 정도 부사가 자주 사용되는 것도 구어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 외에도 ‘못, 안’과 같은 단형 부정이 ‘-지 못하다, -지 않다, -지 말다’와 같은 장형 부정보다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중 부정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위와 같은 특징 이외에도 구어는 담화적(談話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어 발화는 화자가 한 잘못된 발화를 스스로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말을 끝내고 다른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가는 순서 교대나 담화 참여자에 의한 화제 전환도 잦다. 또한 대화에서는 맞장구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이나 요청 등을 받을 때 대꾸하는 표현인 ‘대응쌍’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A]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구어가 대체로 담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화되기 때문이다. 구어는 이처럼 문어에 비해 담화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 또 이야기되는 주제의 부담에 따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발화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어 발화에서는 ‘뭐, 그런데 말이야, 자’ 등과 같이 말을 시작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와 우리말 특유의 몸짓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뉴스나 매우 형식적인 강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어는 즉흥적이고 대화 상황과 참여자의 영향을 크게 받아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화에도 우리 언어생활을 반영한 나름대로의 질서와 구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말 구어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살피는 일환이기도 하며 나아가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34. ‘구어(口語)’를 사용하는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 특유의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
- ② 단형 부정보다 장형 부정을 선호한다.
- ③ 억양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 ④ 의사소통 전략으로 간접 표현을 사용한다.
- ⑤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한 문장 구조가 사용된다.

35.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찌꺼만 더 기다리면 돼.”
- ② “몸살로 며칠간 되게 앓았어.”
- ③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 ④ “저는 생선도 고기도 모두 좋아합니다.”
- ⑤ “근데, 이 책은 재미도 없고 교훈적이지도 않아.”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유선 : 그런데 말이야, 선영이 얘기, 영진이랑 강옥이도 알던데. 개네들은 첨부터 알았나 봐.

경희 : 아냐. 내가 얘기하니까 놀라던데.

유선 : 그래? 그럼, 니가 말해서 안 거야?

경희 : 그랬겠지.

유선 : 그럼 오늘 시간 어때? 오후에 선영이한테 가자.

경희 : 글썄, 어찌지? 음, 약속이 있어서.....

- ① 대응쌍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구어체의 담화 표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잘못된 발화의 수정이 일어나고 있다.
- ⑤ 우회적인 발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7. ㉡의 ‘-다 보니’와 의미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 ②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러도록 하겠다.
- ③ 나도 모르게 벽에 기대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 ④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다.
- ⑤ 그녀는 일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탄소는 110종이 넘는 원소들 가운데 수소, 헬륨, 산소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원소이다. 탄소 화합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이아몬드, 흑연, 버키볼(Bucky ball)과 탄소 나노 튜브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탄소로 결합되어 있지만 각각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동소체라고 부른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간 결합이 3차원 구조를 갖고 있고, 녹는점이 3,730℃로 매우 높으며, 경도는 10으로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탄소 원자 사이에 고정되어 있어 전기 전도성은 없다.

흑연은 결합이 2차원 평면으로 되어있으며, 같은 평면 안에서는 탄소 간 결합이 매우 강하고, 평면을 따라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 전기 전도성을 보인다. 그러나 평면 간의 결합력이 약하고 잘 부서진다.

버키볼은 0차원의 탄소 동소체로, 점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탄소 원자 60개가 축구공 무늬처럼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고 속은 비어 있는 형태이다. ㉠ 버키볼은 기본구조가 육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소체인 다이아몬드를 웃도는 경도를 가지고 있고, 고온과 고압에 잘 견디며 나노 머신의 윤활제로 쓰일 수 있다. 또한 버키볼은 특이한 전기 반응을 보이는데, 다른 물질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도체, 반도체, 초전도체의 세 가지 성질을 나타낸다.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형태의 버키볼이 처음 발견된 이후, 결합된 탄소의 개수가 70개, 76개, 80개 등으로 늘어난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진 다양한 버키볼 형태들도 발견되었다.

버키볼이 발견되고 6년이 지난 후,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육각형 모양이면서 가늘고 긴 튜브 형태의 탄소 동소체를 발견하고, 이를 탄소 나노 튜브라 불렀다.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 원자로 구성된 평면을 원통형으로 말아서 만들었으며, 그 양 끝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모양이다. 길이는 수 마이크로미터이고, 지름은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이다. 굵기는 머리카락의 5만분의 1정도이지만, 구리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며, 매우 가볍고, 다이아몬드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한다. 또한 강철보다 수십 배 탄성이 강하여 강한 힘으로 나노 튜브를 구부려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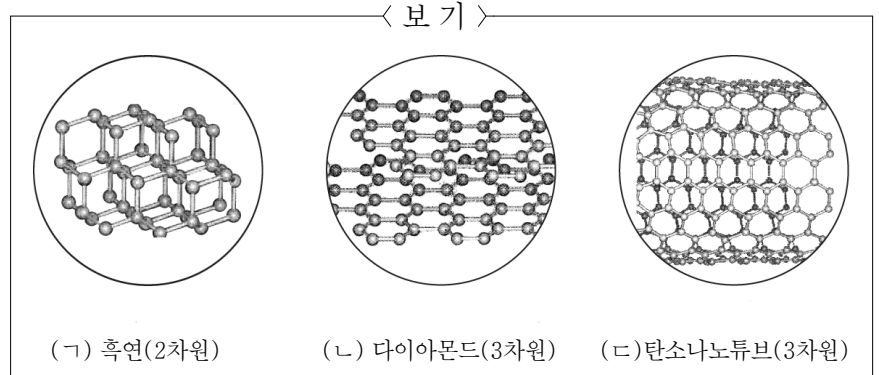
한편 탄소 나노 튜브는 컴퓨터의 반도체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반도체는 실리콘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인위적으로 붕소, 인 등의 불순물을 주입한다. 탄소 나노 튜브는 불순물을 주입하기가 용이한 형태여서 기존의 실리콘과 달리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억 개 이상의 동일한 나노 튜브를 제작하고 배열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고집적도의 반도체 공정을 위하여 실리콘에서 지름이 1~2 나노미터인 탄소 나노 튜브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최첨단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 탄소 나노 튜브가 적용된 제품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나노 튜브를 페인트에 섞어 칠하면 전자파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 효과가 탁월하고, 비행기 외관에 칠하면 레이더의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module)에 나노 튜브를 사용하면 정전기로 인해 먼지가 붙는 것을 막아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소재, 전자 부품, 의약품, 골프채 같은 스포츠 용품 제작에도 탄소 나노 튜브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제 인류는 버키볼과 탄소 나노 튜브라는 최첨단 재료를 이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탄소는 다양한 형태의 동소체를 가지고 있다.
- ② 탄소 나노 튜브의 발견으로 반도체 과학이 발전하였다.
- ③ 탄소 나노 튜브는 다른 물질과의 부착력을 완화시킨다.
- ④ 전기를 전달하는 힘은 원소들 간의 결합력과 비례한다.
- ⑤ 같은 원소라도 결합하는 형태를 달리하면 다른 물질이 된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이 (나)보다 탄력성이 낮으며, (나)이 (다)보다 경도가 낮다.
- ② (가)이 (나)보다 탄력성이 높으며, (나)이 (다)보다 열 전도성이 높다.
- ③ (가)이 (나)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으며, (나)이 (다)보다 탄력성이 낮다.
- ④ (가)이 (나)보다 전기 전도성이 낮으며, (나)이 (다)보다 열 전도성이 낮다.
- ⑤ (나)이 (다)보다 경도가 높으며, (나)이 (다)보다 탄력성이 높다.

40. 위 글을 읽고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온에 잘 견디는 특성을 이용하여 우주선 동체에 버키볼을 이용할 수 있겠군.
- ② 탄소의 개수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버키볼에서 발견된 것이 탄소 나노 튜브이군.
- ③ 모양 상 속이 비어 있는 형태이므로 버키볼 내부에 어떤 물질을 넣어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겠군.
- ④ 높은 경도의 특성으로 볼 때 단단한 재료를 자를 때 사용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대신 버키볼을 사용할 수 있겠군.
- ⑤ 탄소 60개를 가진 버키볼보다 탄소 70개를 가진 버키볼은 오각형이나 육각형 모양의 개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군.

41. 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야구공을 쳐야 하는 야구 배트
- ② 접착이 빈번할 수 있는 자동차 앞 범퍼
- ③ 열을 잘 흡수하고 보온성이 뛰어난 유리창
- ④ 전자파 발생을 줄인 텔레비전이나 휴대 전화
- 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건축재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인(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봐.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던고.

당시(當時)에 녀던 길홀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녀던 마음 마로리.

청산(靑山)은 엇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하야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이 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나)

집의 옷 밥 제쳐 놓고 들 먹느*져 雇工(고공)*아,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로는다.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말하리라. 처음의 혼아비 살림살이하러 할 때, 仁心(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田畚(전답)을 갈아 일귀, 올벼는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 지어 가움여리* 살던 것을, 요사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찌 아주 업서,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즈나, 마음을 다투는 듯 戶首(호수)*를 셈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흥느는다. 너희네 일 아니하고 時節(시절)까지 사나워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火強盜(화강도)에 家産(가산)을 蕩盡(탕진)하니, 집 하나 불에 타고 먹을 것이 전혀 업다. 큰 나큰 세스(歲事)을 엇지하여 이루려나.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아 새 마음 먹어스라.

- 허전, 「고공가(雇工歌)」

* 들 먹는 : 빌어 먹는
* 雇工(고공) : 머슴
* 가움여리 : 부유하게
* 동옷 : 남자들의 옷
* 戶首(호수) : 다섯 가구의 장. 우두머리

(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木手)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을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에 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

차치리가 말했습니다.

“아무려면 탁만큼 정확했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㉔ 탁(度)과 ㉕ 족(足),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衣裳)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영복,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

4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속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강인한 의지를 통해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 ④ 외부적 계기를 통하여 화자의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43. (가), (나)의 공통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미화하고 있다.
- ③ 연쇄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구체적 행동 묘사를 통해 대상의 대조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45. (다)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치리가 만약 자동차를 만든다면 아마 외부 첩관부터 만들었을 거야.
- ② 우리는 '집'하면 집의 겉모습만을 생각하지만, 노인의 머릿속에는 설계도가 들어 있을 거야.
- ③ 어제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변할 수 있다는 건, 진리 자체가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 ④ 단순한 하나의 그림 그리는 순서로부터 사고방식의 차이를 찾아내고 삶의 진리를 발견하는 글쓴이의 통찰력이 놀라워.
- ⑤ 누구나 삶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수하는 것은 차치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이야.

44. (가)와 (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3점]

구분	대상	당면한 문제 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
(가)	나	몇 해를 버려둔 길에 이제야 돌아옴	(ㄱ)
(나)	고공	크나큰 세상사의 해결	(ㄴ)

(ㄱ)

- ① 고인을 못 봄
- ② 만고상청(萬古常靑)함
- ③ 년되 마음을 가짐
- ④ 어디 가 다님
- ⑤ 그치게 함

(ㄴ)

- ① 험이 아주 없게 함
- ② 새 마음을 먹게 함
- ③ 자손에 전계함
- ④ 인심을 많이 쓰게 함
- ⑤ 풀 베고 터를 닦음

46. ㉠: ㉡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 | | |
|---|--------|--------|
| | ㉠ | ㉡ |
| ① | 개인의 가치 | 공공의 가치 |
| ② | 수단적 가치 | 목적적 가치 |
| ③ | 부수적 가치 | 근원적 가치 |
| ④ | 사본의 가치 | 원본의 가치 |
| ⑤ | 현상적 가치 | 본질적 가치 |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분자도 빛을 낼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 주위를 살펴 보면 알 수 있다. 교통 경찰관이 착용하는 벨트는 자동차 불빛을 받으면 밝게 빛난다. 그리고 형광등을 끄면 희미한 빛을 내는 벽지도 있다. 이렇게 분자들이 빛을 내는 이유는 분자가 ㉠ 빛이나 전기 같은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일부는 빛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일 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분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자 구조를 조절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 빛을 얻을 수 있다. 1980년대에 유기 분자를 이용한 실험을 하다가 한 연구원이 실수를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흘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기 분자가 파괴되지 않고, ㉢ 빛을 내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 유기 분자에 전압을 걸었을 때 ㉢ 빛이 나오는 원리는 무엇일까? 우선 유기 분자를 이용한 소자*를 만들어야 한다. 유리 기판 밑에 빛이 투과될 수 있는 투명 전극을 얇게 코팅한 뒤 유기 분자를 코팅하고, 그 밑에 다시 알루미늄 같은 전극을 코팅한다. 그런 다음 투명 전극 쪽에 양극(+), 알루미늄 같은 전극 쪽에 음극(-)을 연결한다. 그러면 투명 전극과 유기 분자 계면*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 분자 쪽에서는 양전하를 띠고, 반대로 알루미늄 같은 전극 쪽과 유기 분자 계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 분자 쪽에서 음전하를 띤다. 이렇게 생성된 양전하와 음전하는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중앙에서 만나 들뜬 상태인 중성의 중간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중간체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 빛 에너지를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장에 의해 유기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어서 빛을 내는 현상을 ‘유기 전계 발광 현상(유기 EL* 현상)’이라고 한다.

유기 전계 발광 현상이 발견된 뒤 기업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유기 EL 디스플레이를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지금까지는 노트북처럼 휴대와 이동이 가능한 액정 디스플레이(LCD)가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LCD는 밝기가 충분하지 않고, 액정의 길쭉한 분자 방향 때문에 시야각이 좁은 단점이 있다. 그리고 LCD는 액정 주입, 컬러 필터 부착 등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유기 EL 디스플레이는 막 하나만 만들면 된다. 또한 LCD에 비해 응답 속도가 빨라 동영상 보기에 적합하다. LCD는 패널 두께가 4~5mm인데 비해 유기 EL 디스플레이는 1.5~2mm로 얇고, 액체가 아닌 고체막이어서 휘는 성질의 기판에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LCD가 영하의 기온에서는 작동이 느려지고 화면이 흐려지는데 비해, 유기 EL 디스플레이는 영하 20~30℃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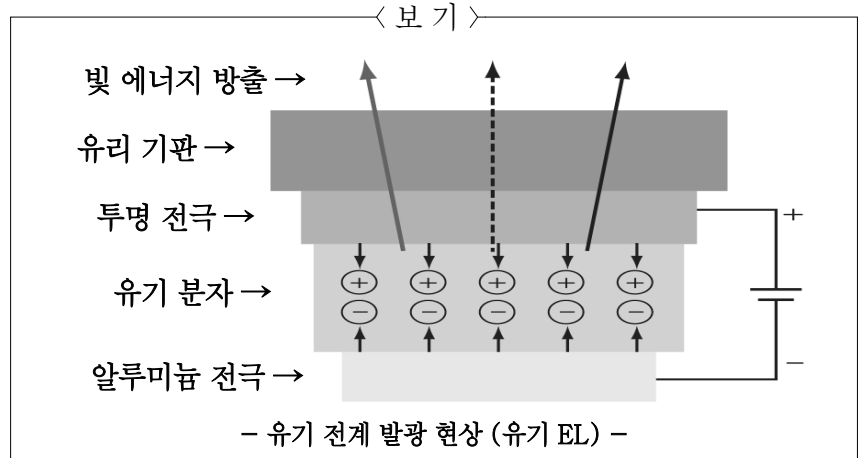
초기의 유기 EL 디스플레이는 전기를 흘렸을 때 빛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낮아 약한 빛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장시간 전기를 흘렸을 경우 유기 분자가 파괴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빛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꾸준한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자동차 내부 표시등이나 핸드폰에 장착되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유기 EL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 소자 : 전기·전자 기기나 회로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성 요소
* 계면 : 맞닿은 두 물질의 경계면
* EL : electroluminescence (전압을 가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유기 분자는 일정한 전압에서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유기 분자는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분자 구조를 다르게 구성하더라도 같은 색으로 보일 수 있다.
- ⑤ 분자가 빛을 낼 때 빛 에너지보다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

48. [A] 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하는 전압에 의해서 이동한다.
- ② 투명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재질이다.
- ③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 ④ 산화 반응에는 양전하를, 환원 반응에는 음전하를 띤다.
- ⑤ 열 에너지가 투명 전극을 통과하면서 빛 에너지로 바뀐다.

49. ‘유기 EL 디스플레이’와 ‘액정 디스플레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유기 EL 디스플레이	액정 디스플레이 (LCD)
ㄱ 휴대성	편리	불편
ㄴ 밝기 정도	양호	미흡
ㄷ 제작 공정	간단	복잡
ㄹ 화면 반응 속도	빠름	느림
ㅁ 영하 기온에서의 작동성	정상	느림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0. ㉠~㉣ 중, 문맥상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